금주의 법구–〈장부경전〉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니르바나를 향해 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8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2월 28일)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청규 · 화목 · 지혜’…성파 종정예하 첫 교시 큰 ‘울림’

조계종, 3월 24일 통도사서 추대 기자간담회

양산 통도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항상 청규 규율을 따르고 화목하며 지혜로서 두루 중생을 이롭게 하라. 〈常要淸規(상요청규) 必順和睦(必順和睦) 普利群生(보리군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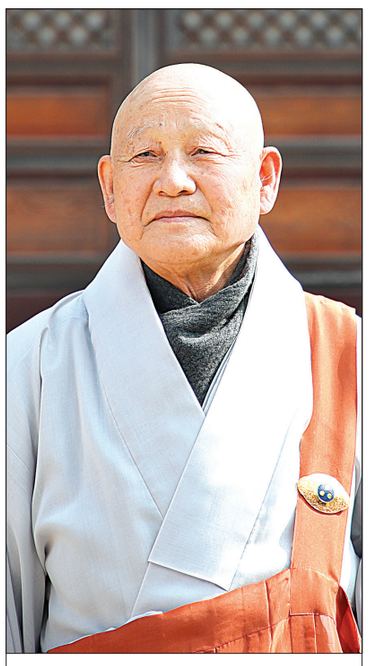
조계종 제15대 종정으로 추대된 중봉성파 대종사〈사진〉의 첫 일성이 교시에 담겼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3월 26일부터 제15대 종정예하로 임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시를 내리고, 수행자들에게는 청규를, 뭇 대중들에게는 지혜와 화목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자는 가르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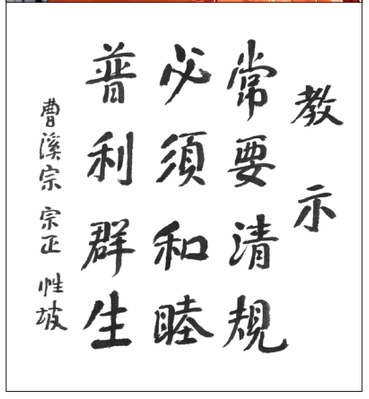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3월 24일 통도사 해장보각에서 중봉성파 대종사의 제15대 종정추대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지난해 12월 종정으로 추대된 이후, 일체 외부활동이나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제해 왔다. 이번 간담회는 사실상 기자들을 통해 대중들과 만나는 첫 일정으로 마련됐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시종일관 소탈함으로 대중들을 맞았다. 시작부터 “불교 집안에서는 종정이라도 일개 산승일 뿐이지 국가의 통치자도, 민족의 지도자도 아닌데 많이들 와주셨다”며 “이왕 오셨으니 차나 한잔하시고 다담(茶談)이나 나누고 가시라”는 말로 미소를 자아냈다.

첫 교시가 내려진 만큼 그 배경과 의미에 관심이 모인 가운데 성파 대종사는 “절집안은 모두 성도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인연도 다른 사람들이 각각 모여 출가해 새롭게 태어나 살아가도록 구성된 특별한 사회”라며 “청규는 특수한 사회를 유지하는 질서이자 법이기에 이를 항상 요긴하게 잘 지켜내고 지혜로서 나누고 화합하고 화목해야 하니 이것이 일종의 상구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규를 토대로 지혜와 화목을 갖춰 우리 본연의 역할이 되는 하화중생, 곧 중생을 이롭게 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고 하는 당부를 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3월 26일부터 공식임기 시작돼
질의응답에 소탈한 답변 이어져
“종정예경실, 따로 두진 않을 것”





조계종 종정예하에 대한 의전체계인 종정예경실을 별도로 두지 않겠다는 파격 선언도 했다.

성파 대종사는 “다른 곳에 거처하고 있으면 몰라도 통도사에 주석하니 본사 주지(현문 스님)가 예경실장 역할을 하면 되고 또한 본사 대중 스님들이 모두 식구이니 사서와 다를 바 없다”며 “종정예경실을 별도로 두는 것 자체가 절집 안에서는 옥상옥이며 되레 종단과의 화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에 굳이 별도로 꾸릴 필요가 없다고 본다. 총무원은 각자 소임대로 종단을 잘 운영하니 종정이라고 해서 내가 특별히 할 것이 없고 순리를 잘 따른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은사의 ‘평상심’ 가르침 지켜와
“평상심, 누구나 佛性있다는 것”
조계종, 정신적 구심점 지켜내야

한평생 은사 월하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온 바도 전했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2002년 월하 스님으로부터 환성지안문하의 13세손으로 인가받았다.

중봉성파 대종사는 “은사스님으로부터 법을 전함이 없이 전하고 말 없는 말을 전함이 없이 전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꼭 물건처럼, 문자처럼 보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주고받는 것”이라며 “이는 곧 평상심이고 평상심이 도라는 것이다. 바꿔말하면 상식이 곧 법이니 그것을 벗어나지 않으면 된다. 평생 이를 잘 지켜왔다”고 말했다.

대종사는 시종일관 ‘산승’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소참법문을 이어가며 때론 웃음을, 때론 감동을 선사했다.

성파 대종사는 “부처가 부처되는 것이 아니라 범부가 부처가 되니, 평상심이 곧 도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나 역시 종정이라고는 하지만 ‘평상심’이 도임을 아는 일개 산승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사회적 이슈인 정치와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생겨나는 정치나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불교계 어른으로서 사회적으로 심화되는 갈등, 코로나 사태로 인한 대중들의 고통,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대해서는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차기 대통령을 비롯한 사회 지도자들에 대해 “아상과 인상을 지양하고 공덕림(功德林)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종사는 “공덕의 숲은 복전이다. 숲이 우거지면 곤충과 새, 뭇짐승이 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염두에 둬 반목과 질시를 지양하고 공덕림을 가꾼다면 나라도 백성도 편하지 않겠나”고 전했다.

남다른 예술 활동으로 알려진 만큼 종정추대 이후 이를 지속해 나갈지에 대한 궁금증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성파 대종사는 “나는 예술가라기 보다 혹글, 혹서, 혹화, 혹선을 했다. 간혹 글쓰고 간혹 그림을 그리고 간혹 참선을 했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승려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해온 일들이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계속 할지 말지도 역시 종정 소임과는 무관한 일상이라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제게 종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묻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요. 태풍이 불면 태풍 단속을 하고 가뭄이 심하면 화재를 예방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에 대한 남다른 시각과 애정도 드러냈다. 성파 대종사는 특히 조계종이 전통을 잘 지켜나갈 것을 주문했다. 대종사는 “한국불교는 한국정신문화의 주축이 되어왔다. 이러한 전통은 시대가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으며 달라져서도 안된다”며 “전통이 굳건하다는 것은 곧 바퀴가 튼튼하다는 것이며, 바퀴가 튼튼하면 어떤 길을 가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한국불교는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중심 역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 세상 평화를 발원하며…” 세계평화를 위해 상월결사 사부대중이 다시 길을 나섰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3월 23일 해남 대흥사에서 ‘상월결사 대흥사 평화순례’를 봉행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이번 순례에는 우크라이나인을 비롯한 불자 500여 명이 참여했다. 순례에 동참한 우크라이나 유학생들은 대흥사에 도착해 부처님 전에 전쟁 종식을 기원하는 헌화를 했다. 〈관련 기사 4면〉 해남 대흥사=노덕현 기자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에 무원 스님

3월 20일 종의회 본회의서 인준
종정예하 도용스님, 임명장 수여
2021년도 천태종 결산안 가결도



천태종 제19대 총무원장에 무원 스님〈사진〉이 임명됐다.

천태종 종의회(의장 무원)는 3월 20일 단양 구인사 삼보당에서 재적의원 30명 중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18차 정기종회의를 열고 ‘총무원장 무원 스님 임명 동의의 건’을 상정,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앞서 도용 종정예하는 무원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지명했으며, 종의회 폐회 후 신임 총무원장 무원 스님에게 총무원장 임명장과 함께 전형위원회 위원, 상벌위원회 위원 위촉장도 수여했다. 신임 총무원장 무원 스님의 임기는 4년이다.

종의회 본회의에서 총무원장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직후 무원 스님은 수락인사말을 통해 “부족한 저를 총무원장으로 지명해주신 종정예하께 공경의 정례를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무원 스님은 “지금 우리는 환경을 비롯해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총체적 난국을 맞아 상월원각대조사님의 뜻을 받들어 우리가 먼저 변화해 앞장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중차대한 시기에 총무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종단 발전과 국태민안을 위해 위법망구의 자세로 멸사봉공하며 총무원장으로서의 직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총무원장 문덕 스님은 인사말에서 “4년의 총무원장 소임 기간 동안 호념해 주신 종정예하께 감사드린다. 종단의 여러 부서와 산하단체가 협력해 주신 덕분에 큰 과오없이 소임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날 종의회는 2021년도 중앙종무기관, 산하단체의 결산안을 가결했다.

한편, 무원 스님은 1979년 대충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했다. 1993년 6급 법계, 2013년 3급 법계를 품수했다. 2001~2007년 총무원 사회부장, 2003년 개성 영통사 복원위원회 단장, 2011~2012년 금강신문 사장, 2011~2012년 총무원장 직무대행, 제15~16대 종의회 의원(15대 종의회 부의장 역임)과 17대 종의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 15교구 본사
불지종가 국지대찰
영축총림 통도사
WORLD HERITAGE TONGDOSA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World Heritage in the Republic of Korea

주 지 이산 현문
전계사 중산 혜남

유 나 항 조 / 강 주 인 해 / 노 전 지 범 / 율 원 장 덕 문 / 염불원장 영 산 / 보살선원장 천 진
총무국장 현 덕 / 기획국장 혜 명 / 교무국장 청 우 / 재무국장 현 담 / 사회국장 석 운 / 포교국장 인 경
호법국장 천 주 / 박물관장 송 천 / 원 주 범 용 / 농 감 서 일

사부대중일동

봉행 대한불교조계종 제15대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 추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지산리583) 전화 055)382-7182 팩스 055)382-7196 www.tongdosa.or.kr